

[에버렛 스완슨이 후원자에게 보내는 편지]

일리노이주 시카고(Chicago, Ill.)

한국의 집 없는 어린이를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후원자님은 한국의 고아들을 위한 새로운 후원자님을 요청한 제 호소에 매우 좋은 반응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실 겁니다. 후원자님은 특정 어린이가 배정되고, 어린이의 사진 등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저는 한 그룹의 사진을 받았고, 후원자님들로부터 요청을 받은 순서대로 어린이들을 배정하였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이제 더 많은 집 없는 어린이들을 길거리에서 구해내는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둘러서 진행하기보다는 주의 깊은 선별 기준을 가지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확실한 배정을 하기까지 한두 달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에 후원자님의 월별 후원금은 이러한 추가되는 어린이들을 위한 추가 시설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후원자님은 매우 현실적인 방식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요청이 또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저는 한국의 첫 번째 한센병 환자 집단 거주지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600 명의 남자, 여자, 어린이들이 평일 오후에 그 교회에 왔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그들에게로, 그리고 특히 바로 그곳에서 한센병 환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어린이들에게로 향했는지 모릅니다.

현재 부모가 한센병 환자인 어린이들이 약 50 명이 있으며, 그 어린이들은 한센병 환자가 아닙니다. 그 어린이들은 언젠가 그 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어린이들을 즉시 도와줄 수만 있다면 병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린이들이 그 집단 거주지에 남아있다면, 그 어린이들도 분명 한센병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며 이 어린이들을 지원하고 돌보아야겠다는 책임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자신의 부모와 다른 한센병 환자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그 어린이들 중 몇 명을 위해 집단 거주지 밖에 한 보육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선교사 친구인 남부 장로교 선교회의¹보이어 목사는 미국 선교회 소속으로 한센병 환자 집단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도 이 어린이들을 돌봐줄 것입니다.

전쟁고아 대신 이 어린이들 중 한 명의 후원자가 기꺼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저는 고아들을 위한 후원자들도 계속 모집할 것입니다.) 이 어린이들은 고아들만큼이나 가난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

¹엘머 보이어(Elmer Timothy Boyer, 한국명 보이열, 1893.7.28~1976.4.15): 미국 남장로교 소속으로 1921년 한국으로 파송 받았으며, 전라도 동부 지역 및 한센인 사역에 힘썼다(<http://www.1907revival.com/bbs/view.html?idxno=3414>).

주님의 눈엔 고아들만큼이나 매우 소중합니다. 마가복음 1 장에서 한센병 환자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사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병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 마가복음 1:40-41) 저는 후원자님도 “내가 원하노니(I WILL)”라고 말씀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능하면 빨리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곧 다른 사진들을 받게 될 것이고 가능한 한 빨리 그중 한 명을 후원자님께 배정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후원자님은 어린이의 사진과 소개 자료를 받게 되며, 편지를 쓰거나 선물이나 소포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후원자님을 인도하도록 하십시오, 나의 친구여.

제가 1951 년에 한센병 환자 집단 거주지를 방문하고 나서부터 저는 이 끔찍한 질병에 걸리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이 어린이들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오, 후원자님이 이 한센병 환자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제 영상을 보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그들을 위해 지속적이고 훌륭하게 실제적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저는 이 소중하고 건강한 어린이들을 위해 적어도 50 명의 후원자를 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40)

후원자님의 결단과 소망을 기록해 등록할 수 있는 카드를 동봉합니다. 후원자님은 이것을 추가적인 프로젝트로 삼으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후원자님은 또한 이 일에 관심을 가질만한 친구나 그룹을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의 불쌍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의 사역에 대해 진정한 기도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이들의 영혼과 육체의 필요를 위해 후원자님께서 해 주신 투자에 대해 분명 풍성하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 결정을 내리고, 엄청난 양의 소책자와 편지 작업을 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저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제 주된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저희는 매주 거의 모든 예배에서 회심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후원자님을 축복하시고, 후원자님이 계속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귀하신 분입니다.

영혼을 위해 그분 안에서 다정하게,

에버렛 스완슨 올림